



울산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7회 코리아국제양궁대회 리커브 부문 단체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딴 한국 남녀 대표선수들(오른쪽부터 박성현, 임동현, 윤옥희, 이창환, 윤미진, 박경모)이 환하게 웃으며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녀 金 명중

리커브 단체전 동반 우승 코리아국제양궁대회

한국 남녀 양궁대표팀이 제7회 코리아국제양궁대회 단체전 우승을 독차지했다. 한국은 5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다섯째 여자 리커브 단체 결승에서 폴란드를 203-19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테네올림픽 2관왕 박성현(24·전북도청)-윤미진(24·수원시청)-윤옥희(22·예천군청)로 이뤄진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결승에 올라온 유럽 강호 폴란드에 2엔드까지 102-100으로 끌려갔지만 박성현과 윤미진이 4엔드 들어 10점을 1발씩 쏘며 경기를 뒤집었다. 3~4위전에서는 영국이 프랑스를 200-193으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경모(32·인천 계양구청)-임동현(21·한국체대)-이창환(25·상무)이 호흡을 맞춘 남자 대표팀도 맞수 이탈리아를 221-212로 누르고 우승했다. 한국은 8발 중 6발을 10점 과녁에 명중시킨 이창환의 '신기(神技)'에 힘입어 1엔드부터 56-51로 앞서간 끝에 9점차 승리를 거뒀다. 3위는 프랑스. 앞서 열린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에서는 한국이 프랑스에 200-213으로 져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필리핀을 꺾고 4강에 올라 메달 희망에 부풀었지만 미국에 205-206, 1점차로 아깝게 지는 바람에 3~4위전으로 밀려났다.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 금메달은 미국을 225-221로 꺾은 러시아가 차지했다.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16강에서 중국에 져 예선 탈락했고 1위는 이란, 2위는 영국이 각각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5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배 2007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과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69-62로 승리해 우승한 신한은행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바스켓 여왕'

삼성생명 69-62 제압 창단 후 첫 통합 우승

안산 신한은행이 창단 이래 첫 통합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배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 리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5차전에서

서 지칠 줄 모르는 '노장 용병' 태즈 맥윌리암스(37점)의 빛나는 활약을 앞세워 69-62로 승리를 거뒀다. 막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3승2패로 삼성생명을 제친 신한은행은 정규경기에서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챔피언전에서 사상 첫 통합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맥윌리암스는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안았다. 신한은행은 전신인 청구 현대 시절을 포함해 통산 세번째 챔피언결을 들어올렸다.

챔피언전 최정전담계 초반부터 양팀은 팽팽하게 맞붙었다. 삼성생명의 변연하(25점)와 맥윌리암스의 슛대결 양상이었던 전반은 신한은행이 35-32로 근소하게 앞서갔다. 그러나 3쿼터에서 신한은행이 먼저 치고 나갔다. 신한은행은 하은주가 공수 리바운드에 가담하고 맥윌리암스가 골밑을 부지런히 공략하면서 점수차를 벌렸다. 4쿼터, 삼성생명은 지켜 보이는 책슨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4분이 지나도

수원 잡고 첫 승 신고한 광주

강팀만 보면 승부욕 쑥쑥

자신감 회복·사기 충전 25일 서울전 설욕 기대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4일 밤 적지에서 호화군단 '태일' 수원 삼성을 2-1로 잡았다. 작년 12월 취임한 부대장 양세일 육군 준장이 시즌 첫 승리를 축하하려 그라운드 내려오자 11명의 불사조 전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관중성명을 불렀다. '발이 뜨면 필승'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강조 광주 상무 감독의 올해 목표는 여전히 팔찌 탈출이다. 이 감독은 "내가 축구 감독인데 객관적 전력을 따져보면 우리가 최악체란 걸 왜 모르겠느냐. 당연히 팔찌를 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춧가루 부대'란 별칭보다는 '강팀 칼러'란 말이 훨씬 듣기 좋다고 했다. 2003년부터 K-리그에 참가한 광주의 최고 성적은 2004년 통합 8위. 작년까지는 해를 바꿔가며 조재진(시미즈), 이종국(미들즈브러), 정경호(울산)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꽤 있었다. 올해는 선수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나마 대표급 선수로는 공격수 남

궁도가 거의 유일하다. 이 감독은 지난 달 14일 '귀네슈호' FC 서울에 0-5로 참패하며 초반 3연패를 당했을 땐 '을 시즌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궁하면 통하는 법. 군인 구단 특유의 불사조 정신에 조재진이 살아나면서 서서히 잠을 깨기 시작했다. 지난 달 17일 성남에 1-3으로 졌지만 한결 마음이 좋아졌다. 3월21일 컵대회 부산전에서 1-1로 비겨 첫 승점을 따냈다. 지난 달 31일에는 귀네슈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파죽의 5연승을 달리던 서울은 광주의 칼거머리 수비에 막혀 유호슈팅을 두 개밖에 날리지 못한 채 득점없이 비겼다. 자신감이 붙은 상무 전사들은 마침내 '태일 수원'을 잡았다. 광주는 오는 25일 상암벌에서 서울과 맞붙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편 4일 열린 컵대회에선 FC서울이 창원 원정에서 경남 FC를 1-0으로 눌렀고, 울산은 인천을 3-1로 완파했다. 대구는 제주를 2-1로, 전북은 포항을 3-1로 꺾었다. 부산은 한화와의 결승골로 대전 시티즌에 1-0으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5세 격투기 선수 히로야 데뷔전 KO 승

15살의 격투기 선수 히로야(일본)가 종합격투기 대회인 K-1 공식 프로데뷔전에서 화려한 KO 승리를 거뒀다. 5일 일본 스포츠 일간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히로야는 전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K-1월드맥스 2007'대회에 출전해 자신보다 10살 더 많은 니시무라 노리타카(25)를 1회 2분47초 만에 KO로 이겼다. 지난 2월 최연소인 중학생 신분으로 K-1 특별경기에 나서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인 다카하시 아키히로(21)를 3회 TKO로 제압했던 히로야는 당시 헤드 기어를 쓰고 경기를 치렀지만 이번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출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

- 6일(금)
 -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11:05·Xports)
 - ▲코리아 국제양궁대회(13:50·MBC)
 - ▲N리그 개막전<이천현멜-안산할레루아>(14:10·KBS1)
 - ▲프로야구<SK-한화>(17:30·KBSN Sports), <두산-삼성>(17:55·KBS2), <LG-KIA>(18:30·MBC ESPN)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한신>(17:50·SBS스포츠)
- 7일(토)
 - ▲마스터스 골프 2R(05:00·KBC, MBC ESPN)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4월 2일 첫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편)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자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정보화기초1 (4/16~5/2)	원도우, 인터넷, 한글(월~금: 19:00~21:00)
정보화기초2 (4/16~5/4)	엑셀, 파워포인트(월~금: 19:00~21:0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 일)	민법, 회계원리, 관계법규, 관리실무, 시찰개론(토 14:00~18:00, 일 10:00~17:00)
공인중개사(월~토)	민법, 법령, 세법, 공시법, 부동산학개론, 공법(월~금: 19:00~22:30, 토 15:00~18:30)
사무자동화(월~금)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개강: 5/13)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료후 100%~80%환급(정보화기초100%환급)
- 접수: 수강신청처: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자 직강

버스노선

- 전남여고교문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 예술의거리입구 동안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문화전당역(구 도청)주진일07, 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중안61, 문충80, 두암82, 518, 1187

☎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http://www.hdedu.co.kr

=서울지방직 1732명 모집, 시험 6월30일 합격에 절호의 기회! 제한없음=

합격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확실히

강좌: 행정직군... 기술직군... 공인직군

시험 안내

- 서울 지방직: 6월 30일 시험, 모집인원: 행정군 399명, 기술군 324명 채용
- 전남 지방직: 6월 18일 시험, 모집인원: 전체 161명, 행정직제의 후반7시험

개강: 매월 1, 15일 주·야(총합)반 모집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329명 여자:31명

시험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서울고시학원

복구청 맞은편 ☎ (062) 251-7959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김재규 경찰학원 3층 *http://www.hdedu.co.kr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의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4월 2일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광주동부경찰서 뒤편 ☎ 227-8088